



02

삼국과 가야의 발전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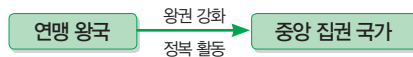
#008 삼국의 초기 발전

고구려	고국천왕(2세기)	왕위의 부자상속제 확립, 5부 개편(부족→행정)
	미천왕(4세기 초)	낙랑군 축출
	고국원왕(4세기 중)	전연의 침략, 백제의 공격(평양성에서 전사)
	소수림왕(4세기 후)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전진과 교류
백제	고이왕(3세기)	한강유역 복속, 관등제와 관복제 실시
	근초고왕(4세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위의 부자 상속제 확립, 정복활동(마한 복속, 고구려 공격) 가야 지역 진출, 해외 진출(산둥, 요서, 규슈지역)
	침류왕(4세기 후)	불교 수용
신라	내물왕(4세기)	김씨 왕위세습제 확립, 마립간 칭호 사용

1) 고대 국가의 성립

① 국가의 발전 과정

삼국은 초기부터 주변 소국을 활발히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이를 주도한 국왕의 권력도 점차 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맹 왕국 단계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다.



②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에서는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고, 족장 세력은 왕권에 복속되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 관제가 정비되고 관리의 복색과 관등이 제정되었으며,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지방 제도도 정비되었다. 또한,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고, 불교를 받아들여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립하고 집단의 통합을 강화하였다.

2) 고구려의 성장

① 고국천왕(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한편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② 미천왕(4세기 초)

미천왕 때에는 중국이 5호 16국으로 나뉘어 혼란한 틈을 타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313),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는 등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고국원왕 때에는 전연과 백제의 연이은 침략으로 왕이 전사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③ 소수림왕(4세기 후반)

소수림왕은 전진과 국교를 맺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켰으며, 율령 반포, 불교 공인, 태학 설립 등을 통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Check Point

***5부의 변화**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절노부, 계루부의 5부가 행정적 성격을 지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부로 개편되었다.

3) 백제의 성장

① 건국

백제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다(기원전 18).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로 출발한 백제는 농경과 교통에 유리한 한강유역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② 고이왕(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무렵 백제는 6좌평의 관계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근초고왕(4세기 중엽)

백제는 **근초고왕**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안으로는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밖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371)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마한을 통합하여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중국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 산동 반도와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으며, 일본의 규슈 지역에도 진출하였다.

④ 침류왕(4세기 말)

그 후 침류왕 때에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을 꾀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4세기 말부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국력이 약화되었다.

***백제의 지배층** 백제가 부여,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집단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사실은 왕족이 부여씨를 성으로 삼은 점, 온조의 건국 설화, 고구려 무덤 양식과 유사한 석촌동 돌무지무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세기의 한반도

***신라의 왕호 변천** 신라는 국가 발전 초기에 박·석·김의 3부족이 연맹하며 그 연맹장을 교대로 선출할 때 이사금을 칭하였다. 이후 김씨가 왕위 세습권을 독점하면서 그 왕권의 강화를 표시하기 위해 대군장이라는 의미의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그 후 지증왕때부터 '왕'칭호를 사용하였다.

4) 신라의 성장

① 건국

신라는 진한 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이 결합해 건국하였다(기원전 57). 이후 6부가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이사금(왕)에 선출되었다.

② 내물왕(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는 낙동강 동쪽 진한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하였고, 왕을 부르는 칭호도 대군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 신라에 침입해 온 왜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를 지원하였고, 이를 계기로 신라는 한때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도 하였다.

탐구자료

고구려의 왜 격퇴

(영락) 9년(399)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 광개토 대왕릉 비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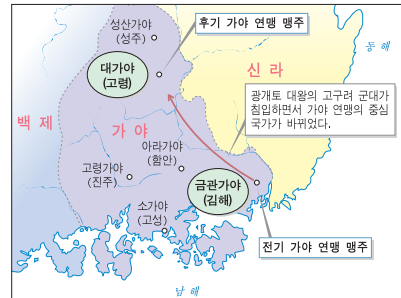
#009 가야, 삼국의 통치제도

가야	전기	금관가야 주도(철의 해상 교역으로 발전)
	후기	대가야 주도, 신라에 복속(562)
통치 제도	귀족회의	제가회의(고구려), 정사암회의(백제), 화백회의(신라)
	관등제도	10여 관등(고구려), 16관등(백제), 17관등(신라)

1) 가야의 성장

① 전기 가야 연맹

가야의 여러 나라는 변한의 소국에서 시작되었다.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여러 정치 집단이 성장하였는데, 3세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 세



가야의 발전

력이 되어 전기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가야의 소국들은 변한 시대부터 발달하였던 우수한 철기 기술과 편리한 해상 교통의 이점을 이용하여 낙랑군, 왜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금관가야는 5세기경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병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몰락하여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② 후기 가야 연맹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는데, 이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한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에 의해 정복되었다(562).

2) 삼국의 통치 제도

① 귀족 회의 제도

삼국 시대에는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귀족의 영향력도 여전하였다. 고구려는 **제가 회의**, 백제에는 **정사암 회의**, 신라에는 **화백 회의**가 있어 귀족이 모여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② 통치 조직

삼국 시대에는 족장 세력이 중앙 관리로 전환되면서 관제와 관등제가 정비되었다. 고구려는 대대로 이하 10여 관등을 두었고, 백제는 6좌평제와 16관등의 틀을 갖추었다. 신라는 17관등제를 정비하고 귀족 세력의 대표로 상대등을 두었다.

③ 지방 제도

삼국은 최상급 지방 행정 단위로 부(육살)와 방(방령) 또는 주(군주)를 두었으며, 그 아래 성이나 군을 두었다. 그러나 말단 행정 단위인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세력을 **촌주**로 삼았다.

등급	관등명	복색	장식
1	좌명	자색	은화 모자
2	달솔		
3	은솔		
4	덕솔		
5	한솔		
6	나솔	비색	자주색 허리띠
7	정덕		
8	시덕		
9	고덕		
10	계덕		
11	대덕	청색	하얀색 허리띠
12	문독		
13	무독		
14	좌군		
15	진무		
16	국무		

백제의 관등

등급	관등명	골품				복색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1	이벌찬	■				자색
2	이찬	■				
3	잡찬	■				
4	파진찬	■				
5	대아찬	■				
6	아찬	■	■			비색
7	일갈찬	■	■			
8	사갈찬	■	■			
9	급별찬	■	■			
10	대나마	■	■	■		청색
11	나마	■	■	■		
12	대사	■	■	■	■	황색
13	사지	■	■	■	■	
14	갈사	■	■	■	■	
15	대오	■	■	■	■	
16	소오	■	■	■	■	
17	조위	■	■	■	■	

신라의 골품제



가야의 금동관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관등제**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 것으로, 종래의 족장적 성격을 띤 다양한 세력 집단이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어 상하 관계를 이룬 것이다.

***화백회의** 상대등이 의장이었으며, 귀족과 왕 사이에서 권력을 조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여 귀족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010 삼국의 경쟁

고구려	광개토왕 (5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 정복(후연 격파), 백제 공격(한강 이북 지배) •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400), 영락 연호
	장수왕(5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조와 동시 수교, 남진 정책 추진(평양 천도), 한성함락 • 한강유역 진출(충주 고구려비)
백제	동성왕(5세기 후)	신라와 결혼 동맹
	무령왕(6세기 초)	지방통제 강화(22담로), 남조(양)와 교류
	성왕(6세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비(부여) 천도, 남부여로 국호 개칭, 중앙관제 정비(22부) • 일본에 불교 전파, 한강유역 회복, 관산성에서 전사(554)
신라	지증왕(6세기 초)	신라 국호, 왕 호칭, 우산국 정복
	법흥왕(6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령 반포, 공복 제정, 병부와 상대등 설치 • 불교 공인, 건원 연호, 금관가야 정복
	진흥왕(6세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도 개편, 불교 교단 정비 • 한강유역 진출(단양 적성비, 4개의 순수비)

1) 고구려의 발전

① 광개토 대왕(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5만의 군사를 신라에 파견하여 신라에 침입해 온 왜를 물리치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거란과 읍루(말갈)를 정벌하였으며, 선비족이 세운 후연을 격퇴하여 요동과 만주 지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광개토 대왕은 ‘영락(永樂)’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장수왕(5세기 중후반)

장수왕 때에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고, 북방 유목 민족과도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뒤(427) 남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성을 점령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의 남쪽 영역은 아산만에서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세기의 한반도

* **충주 고구려비** 충주시 가금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5세기 장수왕 때 고구려가 남한강 지역을 복속하고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 대왕’이란 표현, 신라를 ‘동이’, 신라 왕을 ‘매금’이라 칭하는 것을 통해 당시 고구려 국력의 강대함과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준다.



호우명 그릇

5세기 신라의 고분인 호우총에서 청동 그릇이 발굴되었는데, 그릇 바닥에는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이라는 광개토 대왕의 왕호가 새겨져 있다. 이 그릇이 경주에서 출토된 것은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 왜구를 토벌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탐구자료

고구려의 왜 격퇴

(영락) 9년(399)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口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 광개토 대왕릉 비문 —

Check Point

2) 백제의 중흥

① 백제의 위기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추진하자 신라와 백제는 **나 · 제 동맹**(433)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하지만 결국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공주)으로 옮겼으며(475), 이 때문에 한때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② 백제의 국력 회복

5세기 후반 동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그 뒤를 이은 무령왕은 남조의 양과 문화 교류에 힘쓰는 등 국력을 회복하려 노력하였으며,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③ 성왕(6세기 전반)

성왕은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겼으며(538), 부여 계승 의식을 내세워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또한, 중앙 관청을 22개로 확대 정비하고,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때 한강 하류 유역을 되찾았으나, 신라의 공격으로 이를 다시 빼앗기고 말았다. 그 후 대가야와 왜를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옥천) **전투**에서 전사하였다(554).



6세기의 한반도

3) 신라의 영토 확장

① 지증왕(6세기 초)

지증왕 때에 이르러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를 사용하고,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또한, 우경과 수리 사업을 장려하여 농업의 발달을 꾀하였으며,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② 법흥왕(6세기 전반)

법흥왕 때에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율령을 마련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단양 적성비 고구려의 영토였던 남한강 상류의 단양 적성을 점령하고 세웠다.

*한강유역 한강 하류 지역은 넓은 평야가 있고 황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이었다.

아울러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③ 진흥왕(6세기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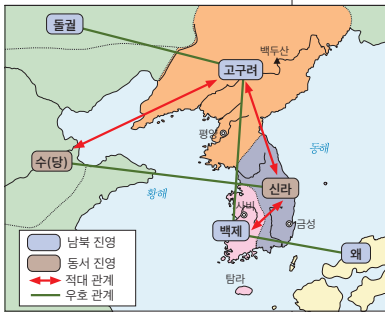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다. 백제의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막아낸 후, 다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쥐고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연맹의 모든 지역을 편입하였으며, 동해안을 따라 함흥평야까지 진출하였다. **단양 적성비**와 북한산비를 비롯한 4개의 **순수비**에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011 고구려의 대중국 항쟁

정세변화	수의 중국 통일(580), 고구려는 돌궐, 백제·왜와 연결
수와의 전쟁	요서 선제 공격(598) → 수의 침입 격퇴(살수대첩)
당과의 전쟁	연개소문의 강경외교(천리장성) → 당의 침입 격퇴(안시성 전투)

1) 수와의 전쟁

①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7세기 동아시아 정세

6세기 말 분열되었던 중국을 수가 통일하고, 그 뒤를 이어 당이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수와 당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고구려를 제압하려 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돌궐과 연결하고, 남으로 백제·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대응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수·당과 연결하여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② 수의 침입과 격퇴

수가 고구려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고구려는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이에 문제는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났다. 이후 612년 수 양제가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을지문덕이 적을 유인한 뒤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여 승리를 거두었다(**살수 대첩**).

2) 당과의 전쟁

① 당의 건국과 천리장성 축조

수나라의 뒤를 이어 당이 건국되었다(618). 당은 태종 황제 즉위 이후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으며,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동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② 당의 침입과 격퇴

642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당에 대해 강경 정책을 추진하자 당 태종은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완강하게 저항하여 당의 침략을 격퇴하였다(안시성 전투, 645).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낸 것은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의 국력도 크게 소모되었다.

Check Point

***연개소문** 천리장성 공사를 감독하면서 요동의 군사력을 장악한 뒤 정변을 일으켜 고구려의 최고 집권자인 대막리지에 올랐다. 이러한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대야성 전투** 백제 의자왕이 군사적 요충지인 경남 함천의 대야성을 함락시킨 전투를 말한다. 이로써 백제는 낙동강 서쪽 옛 가야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다.

#012 삼국의 통일

백제의 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 당 연합 결성(648) → 황산벌 전투와 사비성 함락(660) • 부흥운동 : 주류성(복신, 도침), 임존성(흑치상지), 왜의 지원
고구려의 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개소문 사후 지배층의 분열 → 평양성 함락(668) • 부흥운동 : 한성(검모잠), 오골성(고연무), 신라의 지원
나당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야욕(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 안동 도호부 설치) • 매소성 싸움(675), 기벌포 싸움(676) → 삼국통일 완성(676)

1) 백제의 멸망

① 백제의 멸망

고구려가 수 · 당과 대립하고 있을 즈음, 신라는 백제에 대야성 등 여러 성을 빼앗겨 위기에 처하자 김춘추를 당에 파견하여 **나 · 당 동맹**을 체결하였다(648).

마침내, 나 · 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고,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한 뒤 사비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660).

② 백제 부흥 운동

백제 멸망 후 각지에서 저항 세력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에서 왜에 있던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왜의 지원군이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 갔다(**백강 전투**). 이후 많은 백제 유민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2) 고구려의 멸망

①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는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졌고, 연개소문이 사망한 뒤 세 아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 정치적 혼란이 심하였다. 이 틈을 타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고구려는 멸망하였다(668).

② 고구려의 부흥 운동

고구려 멸망 이후 검모잡과 고연무가 왕족인 **안승**을 내세워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였지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실패하였다. 그 후 신라는 안승을 금마저(익산)에 정착하게 하고 보덕왕으로 임명하였다.

3) 나·당 전쟁과 삼국의 통일

① 나·당 전쟁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고구려의 옛 땅에는 안동 도독부를 설치하였다. 또, 경주에도 계림 도독부를 두고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에 대항하였다. 결국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676).

②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

삼국 통일은 삼국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단일한 기반 위에서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당의 세력을 이용하였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상실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활동 반경을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으로 좁혀 놓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 부흥 운동과 나·당 전쟁